



Gachon Pride

가천의과대학 / 의전문소식 | 제16호 | (2016. 9. 23.)



가천의대, 새로운시작

가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소식지

계간 발행

투고 및 구독신청
medi-pr@gachon.ac.kr

교원소식

2016.06.07.일자 교원 신규 임용

2016년 6월 7일자로 의학과 정형외과학 전공에 안용 교수가 임용되었다. 안용 교수는 척추내시경 시술 분야 권위자로 향후 의과대학 교육과 가천대 길병원 척추내시경 클리닉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척추내시경 시술 권위자



척추내시경 클리닉
안 용 교수

진료분야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척추내시경

- 서울대 의대 학사/석사/박사 취득
- 내시경 시술 2,500례 달성
- 내시경 요추 신경공확장술 세계 최초 <EURO SURGERY>발표
- 재발한 디스크에 대한 내시경 시술 세계 최초 SCI학술지 <SPINE>에 발표
- 내시경 관련 SCI논문 30여편 저술
- 내시경 관련 영문 교과서 3편 저술
- 전)우리들 병원장
- 현)미세침습척추학회 상임이사
- 현)유럽척추학회지 편집위원
- 현)세계정형외과 학회지 편집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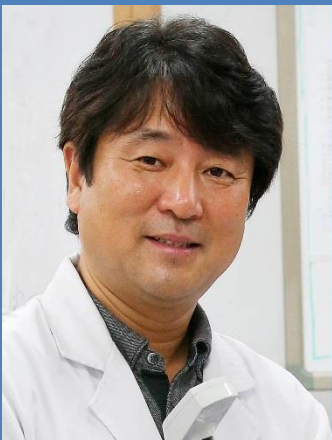
교수동정



비뇨기과학
김계환 교수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학술상 수상

비뇨기과학 전공 김계환 교수가 2016년 9월 1일부터 2일까지 진행된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21차 학술대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해부학
이봉희 교수

제7대 한국줄기세포학회 학술위원장 선출

해부학 전공 이봉희 교수가 2017년 제7대 한국줄기세포학회 학술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이 교수는 줄기세포 분야에 첨단 유전체와 단백질 (genomics & proteomics) 연구를 접목시킨 바이오마커 분야 개척 연구의 공로로 선출되었다.

이 교수는 현재 세계단백체학회 (HUPO) 아시아 대표 council member 및 한국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지난 2년간 한국단백체학회 (KHUPO)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교수동정



의학전문대학원
박귀화 교수

제 26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수상

의학교육학 전공 박귀화 교수(의과대학)가 7월 13일(수) COEX에서 열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 창립 50주년 기념식과 세계과학기술인 대회에서 과총이 주관하는 '제 26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매년 국내학술지에 발표된 과학기술 논문 중 가장 우수한 논문에 주어지며, 384개 과총 회원 학회에서 1편씩 추천을 받아 이학·공학·농수산·보건·종합 등 5개 부문에서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해 선정된다.

박귀화 교수는 'Relationships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ego-resilience, coping efficacy, and academic stress in medical students'이라는 논문을 통해 보건 부문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 논문은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이용하여 정서지능, 자아탄력성, 대처효능감과 의대생의 학업스트레스 간의 구조적 관계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대처효능감(coping efficacy)이 학업스트레스의 중요한 매개변인임을 밝혔다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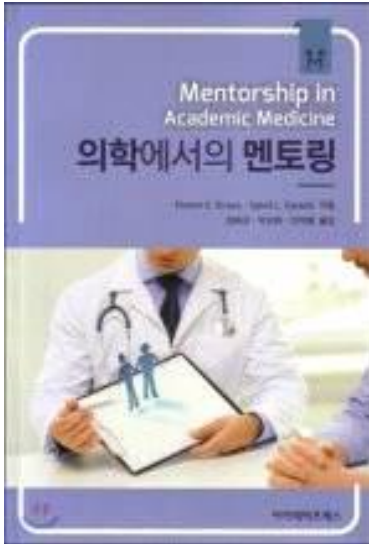


정신건강의학
김종훈 교수

미래부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과제 참여

정신건강의학 전공 김종훈 교수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하는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과제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김교수는 KAIST 연구진과 공동으로 뇌신경계질환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뇌융합 기반 우울증 예측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김 교수는 이번 과제에서 가천대 뇌과학연구원 연구진, 의과대학 약리학 전공 장근아 교수 연구팀과 함께 고해상도 분자 PET 뇌영상 기법 적용 및 신규 동물 모델 개발을 통하여 우울증의 조기 진단지표를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과제를 통하여 우울증 고위험군의 진단적 평가를 위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우울증 발병의 새로운 신경생물학적 기전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수동정



『의학에서의 멘토링』 역서 발간

- 정욱진, 박귀화 교수

Sharon E. Straus · David L. Sackett 지음
정욱진 · 박귀화 · 안석배 옮김

정욱진, 박귀화 교수가 의학교육에 중요한 멘토링 지침서인 『의학에서의 멘토링 (Mentorship in Academic Medicine)』 역서를 발간하였다. 이 책은 멘토와 멘티 모두를 위해 성공적인 멘토링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근거중심의 안내서다. 이 책은 멘토링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문제들과 결함들을 극복하고,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멘토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유용한 전략과 전술들을 제공한다. 또한 유능한 멘토와 멘티의 특징으로부터 멘토링 프로그램의 전략과 전술, 문제가 있는 멘토링을 어떻게 평가하고 개선하는지에 이르기까지 의학에서의 멘토링을 사례자극학습법(case-stimulus learning approach)을 통해 실제적인 사례와 근거로 고찰하게 해준다. 각 장은 사례로 시작하여 각각의 개별 문제들에 대한 근거를 찾아 보고 실행 가능한 메시지들과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예방하는 권고사항들을 제공한다. 이 책은 의과대학 뿐만 아니라 대학원과 병원내 멘토링 책임자들과 멘토-멘티가 될 연구원, 수련의, 전공의, 임상 강사, 스태프(주니어, 중간 경력, 시니어)에 이르는 모든 의사들과 의과학자들이 읽고 진정한 멘토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고,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으로 권장된다.

의학교육소식

7월 의학교육세미나 개최

『임상실습교육에서의 피드백 방법』



지난 7월 18일 의학전문대학원 5층 소그룹 학습실에서 21명의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상실습교육에서의 피드백 방법'에 대한 주제로 의학교육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의학교육세미나에서는 임상실습교육에서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피드백 하는 효과적인 방법과 기법에 관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되었다.

또한 '1분 회진대화'와 'SNAPPS'로 불리는 피드백 방법을 그룹별 역할극 활동을 통해 실제 참여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의학교육세미나를 통해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효과적인 피드백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임상실습교육에서 개선된 피드백 제공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효과 증진을 기대한다.

의학교육소식

기초·인문사회 전체교수 워크숍개최 『의예과 및 의학과 기초 교육과정 논의』



지난 8월 27일 의학전문대학원 1층 합동강의실에서 정명희 의무부총장님과 32명의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예과 및 의학과 기초 교육과정 논의를 위한 기초·인문사회 전체교수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기초·인문사회 전체교수 워크숍에서는 각 기초교실별 의예과 및 의학과 기초 교육과정 계획안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기초·인문사회 전체교수 워크숍을 통해 2017학년도부터 시작될 의학과 기초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교육과정 계획수립의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학생소식

제9회 의학전문대학원 체육대회 개최

2016년 6월 25일(토) 오전 9시부터 메디컬 캠퍼스 체육관에서 제9회 의학전문대학원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하여, 정명희 의무부총장 겸 의학전문대학원 원장, 전용순 학생부원장 등 보직교수, 학생 등 약 200명이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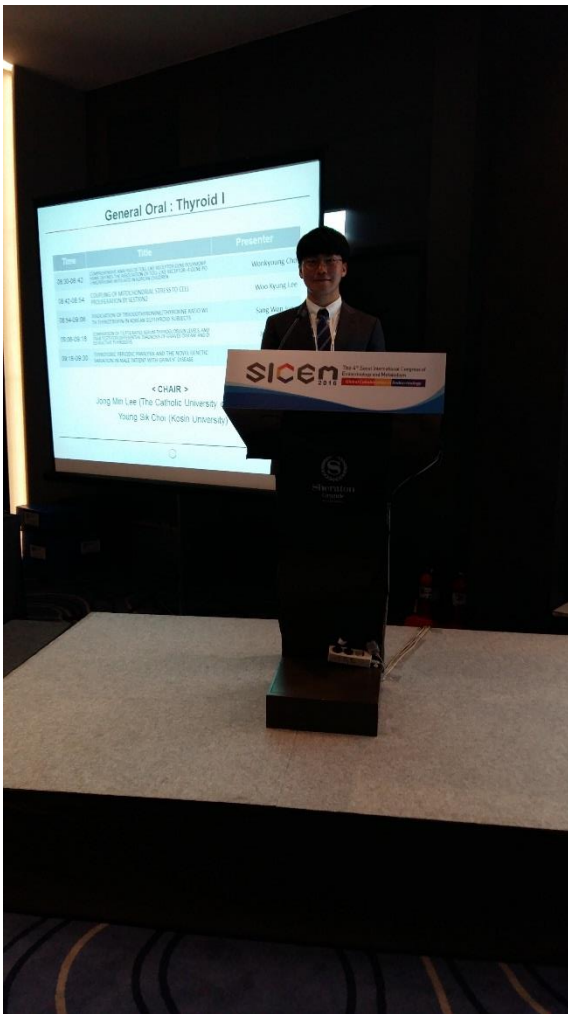
의과대학 의예과 1, 2학년(55명) 과,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1, 2, 3, 4학년 학생들이 2개의 팀을 만들어 농구, 피구, 축구,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등의 체육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는 교수와 학생이 하나되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학생소식

서울국제내분비대사학술대회 구연발표



의학전문대학원 3학년 정상원 학생 (지도교수: 내분비내과 이시훈 교수)이 지난 5월 서울 웨라톤 워커힐호텔에서 개최된 서울국제내분비대사학술대회(SICEM)에서 "Increases in Thyrotropin Are Associated with Increased Triiodothyronine/Thyroxine Ratio in the Korean Healthy Adult Group" 라는 제목으로 구연발표를 하였다. 한국인 건강 검진 자료 약 20만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본 연구 결과는 갑상선 호르몬의 조절 기전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시하였고, 추가 연구를 통한 임상적 적용에 더욱 한 걸음 다가가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통상 전공의, 전임의나 조교수와 같은 신진 연구자들이 주로 구연 발표를 하는 것을 감안하면 국제 학회에서는 보기 드문 학생 발표자로서 주목을 받았다.

정 군은 앞으로도 더욱 학업에 정진하고 연구도 열심히 하는 의학도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한편, SICEM은 대한 내분비학회가 주관이 되어 매년 국제학회로 개최되는 학술회의로 금년은 50여 나라에서 1500명 이상이 참석하였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표적 권위의 내분비-대사 학술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교수칼럼



의학전문대학원
연구부원장
여의주 교수

행복을 창조하자

필자가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행복"이라는 키워드가 떠올랐다. 학생들이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기준이 다르겠지만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성현과 행복론자의 말을 종합해 보면, "기쁨, 보람, 그리고 유익"이 행복을 이루

는 3대 구성요소라고 한다. 기쁨은 즐거움이며 삶의 에너지원이다. 보람은 뿌듯함이며 인생을 가치있게 만들고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유익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정신, 육신, 혹은 물질을 통해 도움을 주는 것이다. 유익은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주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함께 나누는 삶을 의미한다. 기쁨만을 강조하면 쾌락주의자가 되어 타락하기 쉽고, 보람만 추구하면 재미없고 무미건조한 삶이 되고, 유익만을 강조하면 자기가 없는 고달픈 삶을 살게 된다. 기쁨, 보람, 그리고 유익이 조화로운 행복이야말로 지속가능한 행복이 될 것이다.

필자는 언젠가 고통과 역경 속을 헤매면서 간절히 행복해 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이때에 행복은 누군가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 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과거에 내가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았다. 그 중의 하나는 대학시절의 야학교사 활동이었다. 그 시절에는 낮에 신문을 돌리고, 구두를 닦고, 가정부로 일하고, 공장에서 일하며 정규 학교에 다닐 수 없었던 어린 아이들이 많았다. 이들은 공부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야간학교에 모여 늦은 밤까지 졸음에 가득 찬 눈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다. 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쳐주고 맛있는 저녁을 사주는 것으로 유익을 주었고, 바로 이러한 행위가 나 자신에게는 기쁨과 보람을 안겨 주었다. 이들은 이제 동아일보 지국장으로, 시청 공무원으로, 변호사 사무국장으로, 미용사로, 사진작가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어 있다. 이 활동은 바로 기



Gachon Pride

가천의과대학 / 의전원소식 | 제16호 | (2016. 9. 23.)

교수칼럼

쁨과 보람과 유익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으며 서로 영향을 미쳐서 나에게 행복감을 안겨 주었던 것이다. 그 후에는 적극적으로 행복을 찾고자 주말에는 적십자 봉사원 활동도 해 보았고, 탈북청소년과 결연을 맺어 돌보기도 하였으며, 후원금과 자원봉사로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돕는 등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일들을 찾아 행함으로써 행복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결과적으로 행복을 창조하고 키우고 가꾸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며, 남에게 유익을 주면 기쁨과 보람이 함께 해서 종합적으로 행복감이 몰려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행복하고 싶다고 마음먹는 것” 자체가 어두운 동굴에서 등불을 켜는 것과 같다고 한다.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실패와 좌절에 대한 고통과 분노도, 비교당하고 보잘 것 없다는 평가에 대한 허탈감도, 사랑에 버림받은 슬픔도, 나 혼자라는 고독과 공허감도 이 등불을 켜면 순간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인생역전이 아닐까? 행복을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지금 경쟁에서 밀려나 씁쓸한 패배와 아픔을 맛보았다면 단 며칠만 아파해라. 분노와 괴로움을 계속 가슴속에 간직하고 사는 것은 나를 비참하게 만들뿐이다. 내가 왜 그런 생각이나 마음 때문에 불행해져야 하는가? 이들을 흐르는 강물에 던져버리고 당장 더 행복해지자. 지금 행복하지 못하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도 절대 행복할 수 없다. 이 순간에 여기에서 행복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모두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음을 믿고, 기쁨, 보람, 유익이 조화를 이루는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바로 우리가 창조하자.



Gachon Pride

가천의과대학 / 의전원소식 | 제16호 | (2016. 9. 23.)

주요일정

- 09월 24일: 가천문화제
- 11월 12일: 가천의과학심포지엄

▪ 학생신문고 이용 안내

학생신문고 이메일(pride@gachon.ac.kr)을 운영 중입니다. 타 학생, 교수, 기타 대학 구성원으로부터 **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았을 때, **익명 제보나 건의**가 필요한 경우 등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라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천의전원 소식지 Gachon Pride는 여러분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우리 학교의 교수/학생/학부모/동문/교직원의 자랑스럽고 감동이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 계간 (3월 1일, 6월 1일, 9월 1일, 12월 1일)으로 발간됩니다. 이전, 이후 3개월간의 소식과 계획은 물론, 나누고자 하시는 이야기들을 발간일 전달 20일까지 medi-pr@gachon.ac.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Proud Gachon! Have a Gachon Pride!!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교육목적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적은
박애 · 봉사 · 애국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의료인의 전문적 자질을 갖추고,
사회가 필요로 하며, 의학 발전에 기여하는 의과학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교육목표

